

뜨거웠던 호남대전...민주, 접전 없이 넉넉한 승리

영광·곡성군수 민주당 승리 배경

전남 영광과 곡성의 유권자 표심은 '윤석열 정권과 김건희 여사가 정신이 반쪽 들도록' 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혁신당과 진보당의 견제에도, 지역 민심은 '그래도 민주당', '집안 장남이 잘돼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민주당 후보에 마음을 줬다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강한 선명성을 요구해온 호남 민심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한 민주당이 선거 초반부터 마지막까지 이재명 대표를 비롯,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를 총동원한 지원 유세로 지지를 호소한 점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원인으로 꼽힌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밤 11시 30분 개표 결과, 영광군수 선거에서는 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41.03%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석하 진보당 후보가 31.10%의 득표율로 뒤를 이었고

민주 지도부 총출동 텃밭 사수

조국당, 2곳 모두 30% 안팎 득표
영광, 진보당 조국당 제치고 2위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는 26.21%의 득표를 얻는 데 그치며 3위에 머물렀다. 무소속 오기원 후보는 1.64%의 표를 얻었다.

곡성군수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조상래 후보가 55.26% (8706표)의 득표율로 조국혁신당 박용두 후보 (득표율 35.85%)를 제치고 낙승했다.

이번 영광군수 재선거의 관련 포인트는 민주당 텃밭에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세 야당의 치열한 각축전이었다.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약화된 가운데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집요한 공략이 이뤄지면서 선거 초반부터 박빙의 승부처로 좁혔다.

이에 따라 야당 대표들이 연일 현장을 찾아 지원유세를 다니는 등 기초단체 재선거가 사실상 대선판으로 변질될 정도로 치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은 '텃밭 사수'를 위해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들이 연일 영광으로 출동해 바다 민심을 다졌고, 영광 출신 국회의원과 보좌관, 당직자들을 대거 투입해 총력전을 펼친 끝에 승기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텃밭 사수'를 위해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들이 연일 영광으로 출동해 바다 민심을 다졌고, 영광 출신 국회의원과 보좌관, 당직자들을 대거 투입해 총력전을 펼친 끝에 승기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재선거 투표일인 16일 영광군 군민체육센터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종사원들이 수거된 투표지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성을 오가며 전야에서 '한 달 살기' 선거운동을 펼치며 민주당의 틈새를 파고 들었지만, 결국 '텃밭'의 벽을 넘지 못하고 영광과 곡성군수 재선거에서 모두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민주당의 텃밭인 영광과 곡성에서 30% 안팎의 득표율을 올리면서 향후 지방선거에서의 가능성을 엿봤을 것으로 보인다.

진보당도 영광에 김재연 당 대표와 전국 당원들을 투입해 바다 민심을 잡으면서 총력전을 펼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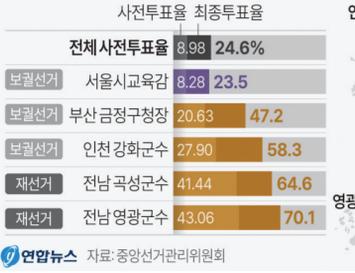
만, 아쉬운 패배를 맞았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30%를 웃도는 의미있는 득표율을 거뒀다는 점에서 선전했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호남의 '집권여당'임을 확인한 만큼 야권 심장부의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심판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민주 진보세력의 목소리를 내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다만, 민주당 지지세가 뚜렷한 '텃밭'임에도, 압도적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호락호락하지 않은 지역 정서를 꼼꼼히 살피는 등 생활정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 같은 당이다보니 지방 행정부와 의회 사이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언급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발언을 새겨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

10-16재·보궐선거 선거구별 투표율

사전투표 10월 11일(금)~10월 12일(토) 오전 6시~오후 6시
선거일 10월 16일(수) 오전 6시~오후 8시



“뜨거운 지지 감사...오로지 군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장세일 영광군수 당선자

“5만 2000 영광군민과 영광 발전을 위해 힘차게 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영광군수 당선자는 16일 “영광의 현실을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저와 민주당을 지지해준 군민들의 믿음에 부족하지 않도록 반드시 영광을 재도약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장 당선자는 이날 당선 소감문을 통해 이 같이 약속하고, “위기의 영광을 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으로 안다. 주어진 소임과 책무를 한시도 잊지 않고 오로지 군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장 당선자는 특히 선거기간 내놓은 공약을 재언급하며 실천 의지를 다졌다.

그는 “영광군민께 약속한 공약을 빠짐없이 실천하고 이행하겠다”며 “특히 에너지위원회 설립을 최우선으로 실천해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기본소득 창출, RE100 산단 조성을 통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어르신들의 노후가 편안한 섬김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장 당선자는 이어 “더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고 아이들이 마음

영광군수 득표율 <밤 11시 30분 기준 개표율 90.67%>

장세일 (더불어민주당)	11,612 (40.92%)
장 현 (조국혁신당)	7,600 (26.78%)
이석하 (진보당)	8,732 (30.77%)
오기원 (무소속)	432 (1.52%)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무엇보다 영광 발전의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따뜻한 영광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 당선자는 5대 공약으로 ▲영광사랑지원금 100만원 지급 ▲군민 평생 연금시대 개막 ▲건강복지타운 조성 ▲농산물 가격 보장제 확대 ▲영광 체험·체류형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 등을 제시한 상태다.

그는 “오늘의 기쁨은 (군민)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고 내일부터 영광 발전을 위해 힘차게 뛰겠다”면서 “군민 여러분께서 주신 뜨거운 지지와 힘으로 군민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한눈팔지 않고 오로지 영광만을 위해 영광군민과 함께 군정에 전념해 새로운 영광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곡성군민의 승리...미래 위한 군정 바로 시작”

조상래 곡성군수 당선자

“곡성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 바로 시작합니다”

10-16 재보궐선거 곡성군수 재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조상래 당선자는 16일 “이번 승리는 저의 승리가 아니라 곡성군민의 승리라고 생각 한다”며 “약속한 선거공약과 선거 과정에서 군민들이 해주신 말씀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조 당선자는 이날 당선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번 최고위원회와 정책 협약식을 통해 곡성-영광을 기본사회 시범도시로 하겠다는 중앙당의 약속을 받았다”며 “기본소득 연 50만원과 군내버스 무료화, 축산폐기물 부담 없애기 등을 실현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군민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만큼 그 힘을 동력으로 곡성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며 “특히 겸손한 자세로 공직자 여러분과 힘을 모아 현재 곡성이 처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내는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당선자는 5대 공약으로 ▲전 군민 군내버스 무료화 ▲부자 농촌 1번지 곡성 만들기(드론 등 자율화 농기계 기반 스마트 농촌 육성 등) ▲곡성 전역 관광 벨트 연결 ▲북지 사각지

곡성군수 득표율

조상래 (더불어민주당)	8,706(55.26%)
최봉의 (국민의힘)	5,493(48.9%)
박용두 (조국혁신당)	5,648(35.85%)
이성로 (무소속)	850(5.39%)

대 없는 맞춤형 생활 돌봄 서비스 ▲청년층이 살기 좋은 환경 구축 (청년기분수당 지급 등)을 제시했다.

곡성군수 도전 ‘삼수’ 만에 당선의 기쁨을 맛본 조 당선자는 “2년 군수”의 포부도 드러냈다. 재선거인 만큼 바로 군수직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 조 당선자는 “두 번 낙선 후 3번째 도전 끝에 당선됐기 때문에 군민들이 진심을 알아주시고 더 많은 표를 주신 것 같다”며 “이번 선거는 4년 임기가 아니고 재선거이기 때문에, 우선 그동안 하던 여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는 게 급선무 일 듯하다”고 말했다.

조 당선자는 이어 “2년 임기 동안 ‘인구 소멸, 지역 소멸 곡성’이 아닌 청년이 돌아오고, 경제가 살아나는 곡성의 기틀을 마련하는데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곡성=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제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